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에리트레아 (ERITREA)

기독교 박해지수
6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에리트레아 정부는 에리트레아 정교회, 가톨릭 교회, 루터교 교회, 수니파 이슬람을 제외한 어떤 종교 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을 받지 못한 교파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젊은이들은 군대에 강제 입대해야 하고, 기독교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도 없다. 국가 봉사 중에 인정을 받지 못한 종교를 실천하다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극도의 압박과 국가가 승인한 매우 높은 수준의 폭력은 일부 기독교인들을 나라를 떠나게 만든다. 이슬람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와 정교회 배경의 개종자들도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권리 침해로 당한다. 특히 젊은 기독교인들은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서 장기 구금 생활을 견디거나, 위험한 인신매매 경로를 통해 나라를 탈출하는 암울한 선택에 직면한다. 이 경로는 종종 수단,

이집트, 리비아와 같은 나라를 거쳐 위험한 지중해를 건너야 한다. 도중에는 죽음, 갈취, 고문 등의 위험에 직면한다. 적대적인 조건에서 탈출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미 위험한 여정이 수단, 에티오피아, 리비아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져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욱 위험한 탈출 경로를 만들고 있다.

에리트레아 (ERITREA)

국가 정보

지도자 :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

인구 : 3,818,000 명

기독교인 수 : 1,687,000 명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687,000	44.2
무슬림	2,049,000	53.7
불가지론자	47,800	1.3
민족종교	31,000	0.8

출처²

에리트레아의 정치 시스템은 1991년 에리트레아의 법적 독립 이후 권력을 잡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의 정당인 인민민주 정의전선(PFDJ)은 국가 내 유일한 정치 단체이다. 이 정당의 플랫폼은 대통령의 개인 숭배와 1961년부터 1991년까지 지속된 에티오피아와의 '해방 투쟁'에 기반하고 있다. 에리트레아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와 민족보다 국가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교육받고 있다.

2018년 7월 초,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와 30년 동안 지속된 분쟁을 끝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역사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인권 단체들은 에리트레아를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정치적 시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미디어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한 제한은 정부에 의해 국가의 사회적 및 종교적 조화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이유로 정당화된다.

에리트레아는 이전에 에티오피아의 연방 구성 요소였으며, 이는 대다수가 무슬림인 에리트레아 해방 운동의 형성을 촉발했다. 에리트레아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강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무슬림들의 움직임을 위협하게 여겼다. 일부 급진 이슬람 단체들은 정교회 기독교인들을 독립 운동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 이후로, 양측은 서로를 의심하고 있다.

¹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²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남부와 중부 지역의 대다수 인구는 기독교인이고, 북부 지역은 대다수가 수니파 무슬림이다. 가장 큰 민족 집단인 티그리냐족의 대다수도 기독교인이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이슬람의 압박은 특히 저지대에서 존재하고, 기독교 교파 보호주의는 고지대 지역(나라의 중앙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재외국민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그룹은 국내에서 이동하거나 다른 기독교인들과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그룹은 에리트레아에서 가장 큰 그룹으로 에리트레아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로마 가톨릭교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앙 및 남부 에리트레아의 기독교인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의 압박과 정부의 조치에 영향을 받고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 범주는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특히 정교회)를 떠나 비전통적인 교회에 합류한 기독교인이나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을 지칭한다. 첫 번째 범주는 에리트레아 정교회와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폭력, 불관용 및 차별을 겪을 수 있으며, 두 번째 범주는 무슬림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그룹은 국가에서 가장 심한 박해를 받으며,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정부와 일반 사회에서 서구의 대리인으로 여겨진다. 특히 오순절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압박과 폭력을 겪으며, 그들의 권리는 정부 관리와 에리트레아 정교회에 의해 정기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기독교 교파 보호주의

에리트레아 정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 특히 오순절 교회를 외부인으로 여긴다. 그러나 정교회도 교회 지도자의 감시, 폭력, 불관용, 그리고 정부와 이슬람 압박 가해자들로부터의 차별 등 외부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독재적 편집증

1993년 독립 국민투표 이후, PFDJ는 아페웨르키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에리트레아를 단일 정당 국가로 완전히 통제해왔다. 이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서방의 대리인이라는 명목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기독교인들을 체포, 괴롭힘, 살해하기도 했다.

이슬람 압박

에리트레아 인구의 약 절반은 무슬림이다. 이들 중 거의 모두가 수니파이다. 대부분의 무슬림 다수 지역에서 기독교인, 특히 개종자들은 특히 취약하다. 개종은 공동체, 가족 및 무슬림 신앙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진다. 급진 단체들로부터 이슬람 국가를 형성하라는 압박이 있지만, 정부의 전체주의가 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적인 부패와 범죄

에리트레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2년 부패 인식 지수(CPI)에 따르면, 에리트레아는 180개국 중 162위를 기록하며 22점을 받았다. 부패는 주로 국가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는 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에리트레아의 여성 기독교인들은 정부와 사회의 압박 사이에 끼여 있다. 개종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납치, 가택연금, 강제 결혼, 강제 이혼, 자녀 양육권 상실을 겪는다. 에리트레아에서는 여성들이 의무적인 군사 훈련과 국가 봉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악명 높은 SAWA 군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이곳은 모든 행동과 신념이 철저히 감시되는 환경이다. 많은 여성들이 군복무와 구금시설에서 성폭력을 경험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사회적 커뮤니티/네트워크 접근 거부
- 자녀 양육권 박탈
- 상속 또는 소유물 박탈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정부에 의한 투옥
- 가족에 의한 구금(가택연금)
- 양심에 반한 군대/민병대 징집/복무
- 성폭력

남성

기독교 남성들은 의무적인 군 징집 대상이 되어 매우 통제된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많은 젊은 에리트레아인들은 나라를 탈출하려고 한다. 일상생활은 감시를 받고 있으며, 전화 통화는 모니터링되고, 대역폭은 느리게 유지되며, 시민들(대부분 여성)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이웃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기독교 남성들이 특히 겪는 압력 지점은 신체적 구타, 체포, 정부에 의한 투옥, 그리고 강제 탈출이다. 대부분의 지하 교회 지도자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체포는 지도력 공백을 초래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마을/국가에서 강제로 이주당함
- 정부에 의한 투옥
- 양심에 반한 군대/민병대 징집/복무
- 폭력 - 죽음
- 폭력 - 신체적 폭력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6	89
2024	4	89
2023	4	89
2022	6	88
2021	6	88

에리트레아는 WWL 2025에서 89점을 기록했고, 이는 WWL 2024에서도 동일한 점수를 기록했다. 에리트레아가 국제 사회에 재통합되고 유엔 제재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유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정책과 광범위한 감시를 통해 국가 및 교회 영역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극심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보안군은 빈번하게 기습 단속을 실시하여 수백 명의 기독교인을 구금하며, 일시적으로 풀려난 이들은 종교를 포기하고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받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로 투옥된다. 많은 구금자들은 수년간 가혹한 환경에서 견뎌야 하며, 이는 정권의 억압적인 본질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는 비전통적인 개신교 그룹을 비애국적이라고 낙인찍어 의심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권의 억압 아래 고통받는 에리트레아 정교회도 개신교 교회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어, 더 넓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는 악순환을 보여준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년간 구금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에리트레아 풀 가스펠 교회의 창립자 중 한 명인 기르마이 아라야 목사는 2021년에 체포되어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은 채 2024년 5월 감옥에서 사망했다.
- 1월부터 5월 사이에 12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혐의 없이 구금되었다.
- 2024년 4월 24일, 서부와 중앙 에리트레아의 아고다트, 바렌투, 테세니 마을에서 35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야간 단속 중 집에서 체포되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구금된 기독교인	정부에 의해 투옥되거나 처벌받은 기독교인	살해당한 기독교인	국내에서 강제 이주된 기독교인
2025	245	100*	2	1000*
2024	300	100*	3	1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에 기반한 폭력의 일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역학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상징적인 수치(10, 100 또는 1000)가 제공되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10,000, 100,000* 및 1,000,000*과 같은 상징적인 숫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 영역

표현의 자유는 모든 형태로 제한되고 있다. 기독교인의 집은 기습 단속을 받아 체포와 기독교 자료의 몰수가 이루어진다. 종종 정부의 감시는 비밀 세포 그룹을 찾아 대규모 체포를 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는 등록된 기독교인들조차도 해당된다. 일상생활은 감시를 받고 있으며, 전화 통화는 모니터링되고 대역폭은 느리게 유지되며, 시민 네트워크는 이웃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가족 영역

부모의 권리는 특히 비전통적인 기독교인의 경우 제한된다.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체포, 고문 및 법적 보호 거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학교와 청소년 군사 훈련 중 정부의 선전은 종종 기독교적 가치관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펜타이'(P'ent'ay)라는 용어는 정교회 회원이 아닌 기독교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교사와 동료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 아이들은 대개 낙인찍히고 괴롭힘을 당하며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데, 이는 특히 부모가 투옥되었거나 투옥된 경

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은 나라를 떠나야 하며, 그로 인해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가족에 대한 압박도 가중되었다. 강제 징집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저항은 용납되지 않는다. 탈출한 젊은 이들의 가족 구성원들은 처벌을 받는다.

공동체 영역

에리트레아에는 이웃의 활동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시민 네트워크(특히 이전에 자유 투사였으며 현재 집권당의 대표인 여성들이 포함됨)가 존재한다. 이 정보원들은 지하 교회 모임을 주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공공 관리에게 보고한다. 정부는 인터넷 사용과 통신을 감시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요한다.

국가 영역

정부는 오직 네 개의 인정된 종교 단체만이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에리트레아 정교회의 총대주교를 임명하며, 2007년에 있었던 것

처럼 종교 지도자의 이권은 직위 해제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방 당국이 등록되지 않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협박할 충분한 근거로 간주된다. 처벌에는 외딴 지역에 위치한 수용소 중 하나로 보내지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구금 시설에서 풀려난 후, 해당 개인은 자신이 속한 (비인정된) 종교를 부인하고 정기적으로 현지 경찰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게 된다. 정부는 시민 사회와 정치 단체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

교회 영역

모든 교회는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가되지 않은 교회들이 가장 많이 감시되고 방해를 받는다. 지도자들은 특히 표적이 되어 체포, 고문, 굶주림, 그리고 강제 노동의 위험에 처해 있다. 심지어 정교회들도 반정부 메시지로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을 설교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인정된 교회의 종교 지도자 선출에 간섭하기도 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에리트레아는 다음의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5. 아동 권리 협약(CRC)

에리트레아는 기독교인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정기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있다 (ICCPR 제7조 및 제10조)
- 에리트레아인들은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무기한 군 복무 및 국가 복무를 강요받고 있다 (ICCPR 제8조 및 ICESCR 제11조)
- 기독교인들은 재판 없이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투옥되고 있다 (ICCPR 제9조)
- 등록되지 않은 그룹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를 실천할 수 없다 (ICCPR 제18조)
- 등록되지 않은 그룹의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위해 모이거나 회합할 수 없다 (ICCPR 제21조)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해서 수니파 이외의 이슬람 관행을 금지했다."

2023년 12월에 발표된 여호와의 증인 종교 자유 보고서를 인용한 미국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IRFR 2023)에 따르면, 에리트레아 당국은 26명의 남성과 10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36명의 여호와의 증인을 계속 구금하고 있다. 이 구금자 중 5명은 2023년에 체포되었으며, 그 중 한 명은 81세의 테스파지온 게브레미카엘이다. 2022년

에 게브레미카엘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그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2023년에는 그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2011년 이후 정부 구금 중 사망한 62세에서 77세 사이의 여호와의 증인 4명이 있었다.

오픈도어의 에리트레아 사역

오픈도어는 1990년대부터 에리트레아에서 지역 교회를 통해 활동해왔다. 우리의 비전은 서로를 지원하고, 신앙을 견고히 지키며, 박해에 맞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에리트레아 교회를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고있다 :

- 박해 대비 프로그램
- 경제적 역량 강화
- 제자 훈련

